

‘울포해양복합센터’ 해양레저 랜드마크 도약

보성군, 설계 보완…484억 투입·내년 완공 목표
다이빙 등 MZ세대 겨냥 해양스포츠 시설 강화

보성군이 ‘울포해양복합센터’ 설계를 보완하며 대한민국 남해안 해양레저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혁신적인 공간 구성과 효율적 설계를 통해 사계절 내내 활기를 띠는 해양레저 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10일 보성군에 따르면 울포해양복합센터는 회천면 울포관광지 내에 총사업비 484억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대규모 해양레저시설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애초 설계에 공간 활용 극대화와 기후변화 대응 구조 보완을 추가해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설계 변경으로 총면적 9046.62㎡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는 유지되지만 최고층이 기존 4층에서 5층으로 늘어나 용적률이 확대되고 공간 배치 효율도 개선됐다.

특히 서평과 다이빙 중심의 해양스포츠 시설을 강화하고, MZ세대를 겨냥한 감각적인 휴게·체험 공간도 대폭 확충됐다.

설계 변경의 핵심은 서평과 다이빙 시설의 대폭 확장이다.

기존 1층 야외 풀장을 없애고, 실내 서

평장을 3개 라인으로 확대해 폭도 12m까지 넓혔으며, 이를 통해 동시 수용 인원을 크게 늘렸다.

또 지하층에 있던 기계·전기실을 지상으로 이전해 해안가 인접 지역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지하수위 상승 또는 해일 피해



울포해양복합센터 조감도

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유지관리 효율도 높였다.

서평 관람객을 위한 리운지 공간도 개선됐다. 기존 2층의 실내 물놀이장은 3층으로 변경되며, ‘다목적 휴게 카페 공간’으로 조성돼 서평과 다이빙을 관람하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복합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4층에는 수중 스튜디오와 북카페가 마련돼, 해양레저와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지는 입체적 체험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울포해양복합센터는 단순한 해양레저 시설을 넘어, 사계절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군은 울포해양복합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해 사계절 이용 가능한 야외광장을 조성하

고, 버스킹 공연장과 불명 공간 등 이색 콘텐츠를 추가해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가장 주목할 시설은 5층에 들어설 다이빙 플로. 수심 41.5m (34m × 13m)에 달하는 이 풀은 국내에서 가장 깊은 규모로,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전문 다이빙 전용 공간으로 설계됐다.

또 다이빙 리운지와 연계된 전문 교육·체험 시스템이 함께 운영되며, 장비 보관실, 교육장, 잠영 공간 등 부대시설도 함께 마련돼 국내외 다이버에게 최상의 훈련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철우 군수는 “울포해양복합센터는 대한민국 남해안 해양레저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며 “공간 활용도와 콘텐츠 경쟁력을 높여 MZ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관광객이 사계절 내내 찾는 명소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계획 수립

시설물 설치·찾아가는 홍보활동·로네상스 연계 캠페인

여수시는 내년까지 2개년에 걸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종합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섬박람회 인지도를 높이고 실효성 높은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자 시민·관광객 참여 유도, 박람회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활동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홍보 시설물 설치, 다중이용시설 섬박람회 홍보 포스터 제작·배부, 가로등 홍보 배너 설치, 찾아가는 섬박람회 홍보활동, 로네상스 연계 홍보 캠페인 전개 등이 있다.

시는 종합 홍보계획을 토대로 섬박람회 홍보를 강화해 지역사회와의 기대감을 키우고 전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관람객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정기명 시장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여수가 가진 해양과 섬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며 “다채로운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박람회를 함께 준비하고 즐기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돌산 진모지구, 여수세계박람회장, 금오도, 개도 일원에

서 개최된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여수시는 내년까지 2개년에 걸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종합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찾아가는 섬박람회 홍보활동, 로네상스 연계 홍보 캠페인 등을 전개한다.

12개 읍·면 회장·간사 등과 소통…“함께 논의하며 성장”

정철원 담양군수가 취임과 함께 현장 행정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10일 담양군에 따르면 정철원 군수는 최근 군청 송강정실에서 개최한 주민자치연합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12개 읍·면 회장과 간사, 담당 공무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지역발전토론회 개최 방안과 주민자치연합회의 대나무 축제 참

여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정 군수는 회의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데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며 “담양군이 주민자치 실현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자치연합회 위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담양군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논의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4기 주민자치연합회는 지난 해 1월 출범 이후 어린이 행복지킴이, 약선요리체험, 마을마다 이야기가 담긴 문패 달기, 마을사랑 클린데이 운영, 어르신 실효의자 만들기 등 읍면별 특색

을 살린 사업과 캘리그라피, 라인댄스, 요가, 서각공예 등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봉사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담양=조성웅 기자 jnwnews@

정철원 담양군수, 주민자치회 활성화 매진

“판촉물
트로피
기념품
상패
회장”

www.gwangnam.com

‘광주사람’은
‘광주판촉물’이지..

062) 376-5431
서구 삼무중앙로75, MK타워 1층



NAVER

광주판촉물



나라장터 | S2B 학교장터

등록업체